

# 2023년 창원지역 고용동향

2024. 2

창원상공회의소

# I. 조사개요

## 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  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  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  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  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  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## 3. 조사기간

- 2024년 2월 1일 ~ 8일

## 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
## II. 요약 및 시사점

### ◎ 제조업·서비스업 근로자 수 ↑, 창원지역 근로자 수 3년 연속 증가

- 2023년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근로자) 수가 전년대비 2.4% 증가한 27만 1,015명을 기록했다.
- 업종별로 서비스업이 14만 4,435명으로 전년대비 2.5% 증가하였고, 제조업 근로자 수도 11만 2,818명으로 전년대비 2.6% 동반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.

### ◎ 자동차, 선박 운송장비 업종이 제조업 근로자 수 증가 견인

- 창원 제조업의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끈 업종은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(1만 8,406명), ‘기타 운송장비’(1만 3명)으로 전년대비 각각 7.2%, 7.1% 증가하였음. 이는 창원지역 자동차와 선박, 항공기 부품 업종의 수출 호조로 인한 생산활동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임.

### ◎ 전체 취업자·퇴직자 수 감소, 제조업 20대·30대 연령에서 신규 채용 증가

- 창원 2023년 기준 취업자 수는 12만 8,305명(-1.4%) 퇴직자 수는 11만 9,581명으로(-4.0%)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. 특히 신규취업자·경력취업자 수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. 창원지역 고용시장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임. 다만 이는 생산량 회복에 이루어진 2021년, 2022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.
- 제조업의 경우 신규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, 주로 20~30대의 연령이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. 더불어 60대 제조업 퇴직자 수가 증가하여 창원지역 제조업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- 퇴직사유별로는 ‘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’가 7만 189명(비중 58.7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계약만료 및 공사종료’ 2만 6,209명(22.5%),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’ 1만 3,069명(10.9%) ‘폐업 및 도산’ 3,780명(3.2%), ‘정년’ 1,799명(1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퇴직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,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자발적 퇴직률이 감소하였음. 경력취업자, 자발적 퇴직이 줄어들면서 창원지역 이직 성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.

### Ⅲ. 창원시 고용동향

#### 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3년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<sup>1)</sup>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7만 1,015명임. 이는 전년대비 2.4% 증가한 수임.
- 규모별로 ‘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’ 10만 704명(+3.8%), ‘300인 이상’ 6만 4,447명(+3.1%), ‘100인 이상 300인 미만’ 3만 6,761명(+2.3%)으로 증가한 반면, ‘10인 미만’ 6만 9,103명(-0.2%)으로 감소하였음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	
					상반기	하반기
전 체	253,285 (0.2%)	252,941 (-0.1%)	261,340 (3.3%)	264,721 (1.3%)	270,874 (2.3%)	271,015 (2.4%)
10인 미만	64,984 (1.4%)	69,393 (6.8%)	69,030 (-0.5%)	69,237 (0.3%)	67,325 (0.2%)	69,103 (-0.2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2,587 (-3.4%)	92,220 (-0.4%)	95,097 (3.1%)	97,023 (2.0%)	102,098 (4.4%)	100,704 (3.8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3,184 (-2.2%)	32,438 (-2.2%)	34,409 (6.1%)	35,935 (4.4%)	37,063 (1.1%)	36,761 (2.3%)
300인 이상	62,260 (5.9%)	58,890 (-5.4%)	62,804 (6.6%)	62,526 (-0.4%)	64,388 (2.2%)	64,447 (3.1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\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\* ( )는 전년대비 증감율

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- 연령별로 '60세 이상' 4만 7,750명(+8.3%), '50~59세' 6만 8,374명(+2.9%), '29세 이하' 3만 4,883명(+2.0%), '30~39세' 5만 3,315명(+0.1%) 순으로 증가하였으며, '40~49세'는 5만 3,598명(-0.1%)으로 감소하였음.
- 2023년 기준 연령별 근로자 수는 '40~49세'를 제외하고 전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.

창원시 연령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	
					상반기	하반기
전 체	253,285 (0.2%)	252,941 (-0.1%)	261,340 (3.3%)	264,721 (1.3%)	270,874 (2.3%)	271,015 (2.4%)
29세 이하	34,602 (-1.8%)	34,281 (-0.9%)	35,091 (2.4%)	34,198 (-2.5%)	35,580 (0.4%)	34,883 (2.0%)
30~39세	57,572 (-4.0%)	55,552 (-3.5%)	54,799 (-1.4%)	53,281 (-2.8%)	53,598 (-0.9%)	53,315 (0.1%)
40~49세	65,636 (-0.9%)	65,062 (-0.9%)	66,207 (1.8%)	66,736 (0.8%)	66,814 (0.4%)	66,693 (-0.1%)
50~59세	62,057 (2.9%)	62,686 (1.0%)	65,282 (4.1%)	66,429 (1.8%)	67,423 (2.0%)	68,374 (2.9%)
60세 이상	33,418 (7.9%)	35,360 (5.8%)	39,961 (13.0%)	44,077 (10.3%)	47,459 (11.6%)	47,750 (8.3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※ 연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( )는 전년대비 증감율

## 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- 2023년 기준 업종별(대분류)로 건설업은 제외한 제조업, 서비스업, 근로자 수가 동반 증가하여,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,  
창원지역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4만 4,435명으로 전년대비 2.5% 증가하였고. 제조업 근로자 수도 11만 2,818명으로 전년대비 2.6% 증가하였음. 반면에 건설업은 1만 430명으로 0.2% 감소하였음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	
					상반기	하반기
전 체	253,285 (0.2%)	252,941 (-0.1%)	261,340 (3.3%)	264,721 (1.3%)	270,874 (2.3%)	271,015 (2.4%)
제조업	107,789 (-3.1%)	107,552 (-0.2%)	109,871 (2.2%)	110,008 (0.1%)	111,930 (1.3%)	112,818 (2.6%)
서비스업	132,045 (3.3%)	132,240 (0.1%)	138,118 (4.4%)	140,961 (2.1%)	145,236 (3.3%)	144,435 (2.5%)
건설업	9,970 (-3.3%)	9,934 (-0.4%)	10,027 (0.9%)	10,448 (4.2%)	10,441 (1.6%)	10,430 (-0.2%)
기 타	3,481 (2.6%)	3,215 (-7.6%)	3,324 (3.4%)	3,304 (-0.6%)	3,267 (-0.4%)	3,332 (0.8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\* 연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\*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\* ( )는 전년대비 증감을

-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729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8,123명, '전기장비' 1만 8,034명, '1차 금속' 9,806명, '기타 운송장비' 9,756명 등의 순임.

- 업종별 제조업 근로자 수는 ‘식료품’(+12.5%)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(+7.2%), ‘기타 운송장비’(+7.1%), ‘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’(+4.8%), ‘전기장비’(+3.1%), ‘기타기계 및 장비’(+2.6%), ‘1차 금속’(+2.2%)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음.
- 자동차, 선박 등 운송장비 업종의 수출 호조로 인해 해당 산업의 근로자가 수가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.

**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대비)**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	
					상반기	하반기
제조업	107,789 (-3.1%)	107,552 (-0.2%)	109,871 (2.2%)	110,008 (0.1%)	111,930 (1.3%)	112,818 (2.6%)
기타 기계 및 장비	30,066 (-3.4%)	29,284 (-2.6%)	29,494 (0.7%)	29,560 (0.2%)	29,729 (0.8%)	29,688 (0.4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7,433 (-5.2%)	16,770 (-3.8%)	16,825 (0.3%)	17,166 (2.0%)	18,123 (7.0%)	18,406 (7.2%)
전기장비	12,816 (0.7%)	16,328 (27.4%)	17,789 (8.9%)	17,409 (-2.1%)	18,034 (-0.9%)	17,947 (3.1%)
1차 금속	11,137 (-7.6%)	9,667 (-13.2%)	9,682 (0.2%)	9,837 (1.6%)	9,806 (2.0%)	10,057 (2.2%)
기타 운송장비	9,954 (-3.8%)	8,981 (-9.8%)	9,156 (1.9%)	9,340 (2.0%)	9,756 (6.3%)	10,003 (7.1%)
금속가공제품 (기계 및 가구 제외)	7,927 (-1.9%)	7,920 (-0.1%)	8,219 (3.8%)	8,411 (2.3%)	8,706 (6.3%)	8,815 (4.8%)
전자부품	6,314 (-0.2%)	6,535 (3.5%)	6,930 (6.0%)	7,085 (2.2%)	6,985 (-3.8%)	6,948 (-1.9%)
의료, 정밀, 광학기기, 시계	3,589 (5.4%)	3,566 (-0.6%)	3,501 (-1.8%)	2,825 (-19.3%)	2,354 (-28.4%)	2,329 (-17.6%)
식료품	1,683 (4.5%)	1,680 (-0.2%)	1,737 (3.4%)	1,799 (3.6%)	1,792 (1.6%)	2,024 (12.5%)
고무 및 플라스틱	1,728 (-1.9%)	1,756 (1.6%)	1,420 (-19.1%)	1,467 (3.3%)	1,504 (4.4%)	1,457 (-0.7%)
기타	5,142 (-4.3%)	5,065 (-1.5%)	5,118 (1.0%)	5,109 (-0.2%)	5,141 (-0.4%)	5,144 (0.7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\* 연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\* 기타 제조업은 ‘가구’, ‘가죽·가방 및 신발’, ‘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’, ‘비금속 광물제품’, ‘섬유제품(의복제외)’, ‘음료’,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’, ‘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’, ‘코코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’, ‘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’, 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’, ‘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’, ‘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’, ‘담배 제조업’을 포함함.

\* ( )는 전년대비 증감율

-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(4만 774명)가 가장 많았고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'(1만 5,778명), '도·소매'(1만 5,588명), '전문, 과학 및 기술'(1만 4,480명), '운수 및 창고업'(1만 545명), '숙박 및 음식점'(1만 211명), '교육'(9,898명)이 뒤를 이었음.

### 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	
					상반기	하반기
서비스업	132,045 (3.3%)	132,240 (0.1%)	138,118 (4.4%)	140,961 (2.1%)	145,236 (3.3%)	144,435 (2.5%)
보건업· 사회복지	33,758 (6.7%)	35,436 (1.9%)	38,057 (2.9%)	39,298 (3.3%)	40,393 (3.4%)	40,774 (3.8%)
사업시설 관리·지원	14,679 (-6.3%)	13,889 (-1.1%)	14,467 (2.6%)	15,127 (4.6%)	15,949 (8.0%)	15,778 (4.3%)
도·소매업	14,671 (1.6%)	14,853 (0.5%)	15,836 (4.6%)	15,694 (-0.9%)	15,963 (1.8%)	15,588 (-0.7%)
전문, 과학·기술	11,972 (5.4%)	12,937 (4.3%)	13,425 (2.2%)	13,894 (3.5%)	14,238 (4.1%)	14,480 (4.2%)
운수·창고	10,903 (0.4%)	10,225 (-2.9%)	10,362 (-0.4%)	10,278 (-0.8%)	10,496 (2.0%)	10,545 (2.6%)
숙박·음식점	8,797 (15.4%)	8,622 (0.9%)	8,953 (3.8%)	9,791 (9.4%)	10,003 (6.6%)	10,211 (4.3%)
교육	8,677 (6.1%)	8,841 (1.0%)	9,207 (-0.1%)	9,353 (1.6%)	9,923 (4.7%)	9,898 (5.8%)
협회·단체 수리·기타	5,675 (-2.4%)	5,760 (-2.1%)	5,987 (-1.8%)	6,153 (2.8%)	6,307 (1.1%)	6,165 (0.2%)
부동산	5,401 (4.9%)	5,605 (1.4%)	5,726 (1.0%)	5,505 (-3.9%)	5,488 (-0.3%)	5,472 (-0.6%)
공공·국방· 사회보장	6,978 (-3.2%)	5,632 (-5.5%)	5,645 (-9.1%)	5,378 (-4.7%)	6,046 (-1.0%)	5,079 (-5.6%)
금융·보험	5,174 (0.6%)	5,139 (-0.4%)	5,053 (-0.4%)	4,984 (-1.4%)	4,925 (-0.1%)	4,954 (-0.6%)
정보통신	2,598 (6.7%)	2,751 (8.5%)	2,873 (3.5%)	2,822 (-1.8%)	2,778 (1.3%)	2,785 (-1.3%)
예술·스포츠· 여가	2,762 (21.7%)	2,550 (-3.6%)	2,527 (3.0%)	2,684 (6.2%)	2,727 (-0.4%)	2,706 (0.8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\* 연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\* ( )는 전년대비 증감율



### 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2023년 기준, 노동이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12만 8,305명으로 전년 대비 1.4% 감소했고, 퇴직자 수는 11만 9,581명으로 4.0% 감소했음.  
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1.3% 감소한 11만 4,220명, 신규취업자는 2.0% 감소한 1만 4,085명을 기록했다.
- 신규취업자·경력취업자 수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. 이는 창원지역 고용시장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임. 다만 이는 생산량 회복에 이루어진 2021년, 2022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.

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19	'2020	'2021	'2022	'2023
취업자	120,771 (-0.8%)	114,838 (-4.9%)	127,515 (11.0%)	130,087 (2.0%)	128,305 (-1.4%)
신규취업자	14,505 (3.7%)	13,366 (-7.9%)	14,234 (6.5%)	14,368 (0.9%)	14,085 (-2.0%)
경력취업자	106,266 (-1.4%)	101,472 (-4.5%)	113,281 (11.6%)	115,719 (2.2%)	114,220 (-1.3%)
퇴직자	117,941 (3.4%)	116,912 (-0.9%)	117,405 (0.4%)	124,618 (6.1%)	119,581 (-4.0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※ ( )는 전년대비 증감율

- 2023년 기준 연령별 신규취업자는 30~29세(+25.9%)에서, 경력취업자 수는 60세 이상(+9.4%)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. 이와 더불어 퇴직자는 '60세 이상'에서 6.2% 증가하여 정년 퇴직 후 재취업하려는 경향을 보임.
- 특히 제조업의 경우 신규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주로 20~30대의 연령이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. 더불어 60대 제조업 퇴직자 수의 증가를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, 창원지역 제조업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
### 연령별 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	'2021		'2022		'2023	
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	전체	제조업
<b>취업</b>	127,515 (-11.0%)	37,841 (22.8%)	130,087 (-2.0%)	37,685 (-0.4%)	128,305 (-1.4%)	37,613 (-0.2%)
<b>신규취업자</b>	14,234 (-6.5%)	4,003 (30.3%)	14,368 (-0.9%)	3,860 (-3.6%)	14,085 (-2.0%)	4,700 (21.8%)
29세 이하	8,962 (8.7%)	2,669 (22.1%)	9,291 (3.7%)	2,584 (-3.2%)	9,018 (-2.9%)	3,102 (20.0%)
30~39세	1,302 (48.0%)	714 (108.2%)	1,283 (-1.5%)	683 (-4.3%)	1,615 (25.9%)	1,052 (54.0%)
40~49세	743 (-6.1%)	238 (24.6%)	735 (-1.1%)	224 (-5.9%)	608 (-17.3%)	237 (5.8%)
50~59세	1,592 (-8.5%)	258 (12.2%)	1,419 (-10.9%)	228 (-11.6%)	1,221 (-14.0%)	192 (-15.8%)
60세 이상	1,635 (-4.4%)	124 (0.8%)	1,640 (0.3%)	141 (13.7%)	1,623 (-1.0%)	117 (-17.0%)
<b>경력취업자</b>	113,281 (-11.6%)	33,838 (22.0%)	115,719 (-2.20%)	33,825 (0.0%)	114,220 (-1.3%)	32,913 (-2.7%)
29세 이하	25,934 (15.7%)	9,242 (25.9%)	25,327 (-2.3%)	8,831 (-4.4%)	23,630 (-6.7%)	8,243 (-6.7%)
30~39세	20,309 (4.9%)	7,400 (9.8%)	19,986 (-1.6%)	7,580 (2.4%)	20,268 (1.4%)	7,964 (5.1%)
40~49세	23,172 (7.0%)	7,700 (19.2%)	23,574 (1.7%)	7,710 (0.1%)	22,757 (-3.5%)	7,366 (-4.5%)
50~59세	22,961 (10.0%)	6,199 (25.1%)	23,954 (4.3%)	6,098 (-1.6%)	22,541 (-5.9%)	5,641 (-7.5%)
60세 이상	20,905 (21.8%)	3,297 (47.5%)	22,878 (9.4%)	3,606 (9.4%)	25,024 (9.4%)	3,699 (2.6%)
<b>퇴직</b>	117,405 (-0.4%)	35,165 (3.4%)	124,618 (-6.1%)	37,105 (5.5%)	119,581 (-4.0%)	34,462 (-7.1%)
29세 이하	28,552 (8.1%)	9,488 (19.6%)	29,827 (4.5%)	9,513 (0.3%)	26,378 (-11.6%)	7,786 (-18.2%)
30~39세	20,392 (-3.4%)	7,566 (-0.6%)	20,853 (2.3%)	8,027 (6.1%)	20,331 (-2.5%)	7,738 (-3.6%)
40~49세	22,205 (-4.5%)	7,407 (-0.5%)	23,429 (5.5%)	7,859 (6.1%)	22,112 (-5.6%)	7,364 (-6.3%)
50~59세	22,807 (-3.1%)	6,329 (-7.6%)	24,434 (7.1%)	6,672 (5.4%)	23,072 (-5.6%)	6,262 (-6.1%)
60세 이상	23,449 (3.7%)	4,375 (5.0%)	26,075 (11.2%)	5,034 (15.1%)	27,688 (6.2%)	5,312 (5.5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\* ( )는 전년대비 증감률

○ 2023년 기준 퇴직 사유별로 살펴보면 ‘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’가 7만 189명 (비중 58.7%)로 가장 많았고, ‘계약만료 및 공사종료’ 2만 6,209명(21.9%),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’ 1만 3,069명(10.9%), ‘폐업 및 도산’ 3,780명 (3.2%), ‘정년’ 1,799명(1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퇴직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,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자발적 퇴직률이 감소하였음. 경력취업자, 자발적 퇴직이 줄어들면서 창원지역 이직 성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.

### 2023년 사유별 퇴직자 수(전년대비)

(단위 : 명)

퇴직 사유	2022년	2023년	전년대비 증감률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72,521 (58.2%)	70,189 (58.7%)	-3.2%
계약만료, 공사종료	28,531 (22.9%)	26,209 (21.9%)	-8.1%
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14,028 (11.3%)	13,069 (10.9%)	-6.8%
폐업, 도산	3,206 (2.6%)	3,780 (3.2%)	17.9%
정년	1,772 (1.4%)	1,799 (1.5%)	1.5%
이종고용	1,531 (1.2%)	1,438 (1.2%)	5.3%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1,365 (1.1%)	1,400 (1.2%)	-8.6%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	843 (0.7%)	738 (0.6%)	-12.5%
고용보험 비적용	531 (0.4%)	669 (0.6%)	26.0%
분류불능	290 (0.2%)	290 (0.2%)	0.0%
계	124,618 (100%)	119,581 (100%)	-4.0%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고용보험 비적용 제외, ( )는 전체 퇴직자 중 비중